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일: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293호

서기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실오라기 하나도 걸림있으면 공부 못해

여러분께서 지리 없는 자리에 한자리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으면 해서, 서로 토론 하듯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느끼고 또 말없이 가는 길도 아시고, 말없이 하는 일도 아시고, 힘이 없이 하는 일도 아시고, 그러한 마당에 우리가 한마당에서 한말로 질문하는 게 알아듣기 쉽고 좋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이 중요

질문1: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구요. 제가 짙게 인연이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스님이 이렇게 제실 때 꼭 한번이라도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법회에 일찍 와서 법당에 앉아 일년에 한번 있는 소중한 기회가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제 부주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차가 제 차를 덮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 생각보다 일찍 못 일어 나게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집사람이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 문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뜨니까 나가요. 몸도 아프고 또 추워서 와서 오래 있으면 되지 않을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끊는 마음으로 나가는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언뜻 잠이 왔는데 지도 모르는 사이 느낌이 드는 것이 '절' 자로만 느껴졌어요. '뚱뚱' 절로만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끊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공부라는 마음이 아주 절절이 들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스승님이 집사람을 꼭... 전 부 내 스승님인데 지도 모르겠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 몸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근본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활을 쏘던 중 아주 제일 잘 쏘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알고 모르고 간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모르든 알든 진실한 마음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거를 막론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질문2: 스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희가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한마음 그 자리에서 놓고 말고도 가쁜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상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희가 말고도 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뜻에 누가 안되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고 해결이 되는지 가르침 주세요.

보살이 라면을 먹는다 하면은 같이 다 서로 공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죠. 조상들이 이유를 붙일 수가 없죠. 항상 같이 하니, 오히려 조상들이 돌봐주고 나가요.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데에, 그러면 조상들이 무슨 이유를 붙여서 고를 주나 생각이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이라는 틀에서 살아나온 부모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잘못되게 할 수 있을 것인정 부모는 자식한테 잘못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묘지를 쓸 때에 돌 있는 데에다 잘못 썼거나 돌 있는 데에다 잘못 썼거나 무슨 산이 있는 데다 잘못 썼거나 남이 묻었던 자리에 잘못 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자식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질문2: 공심 공용이고 또 조상님들 돌 아닌 도리를 알면서 돌 아니게 걸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돌 아닌 도리를 알면서 가지만 돌 아닌 도리를 공부한다고 조상님과 돌 아닌 도리가 된다는 것을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스님: 그러니까 단번에 믿을 건데도 단번에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정자 난자 그 둘이 모순은 부모한테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태어날 얘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부처와 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못 믿지 마시고, 단번에 믿으시면 단번에 해결이 날 거를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 자체가 바로 과거 당신이다. 별성과도 같고 불성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야 된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움직여라. 하는 지도자나 믿어야 된다. 움직여라지 않고도 움직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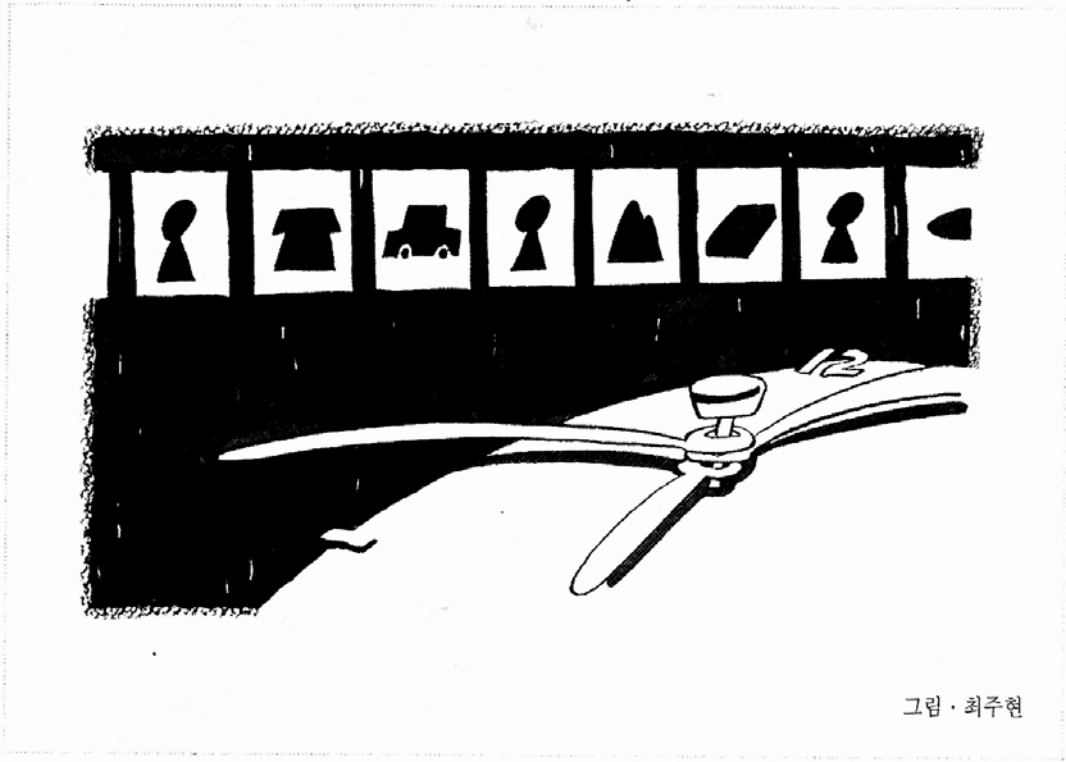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성은 일체를 다 움직이는 지도자 내 주장자 붙들어야 일체 쏙 벗어나

리게 하는 불성이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도 벌어지고 작은 일도 크게 벌어지고, 생각들을 잘못해서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못 믿지 마시고 자신들이 부모를 믿을 때에 죽어든 살았든 그 마음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혼이 있든 없든 막론하고, 있나 없나를 따지지 마시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생이로구나, 죽은 영가도 산 사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따로따로가 없이 사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없습디다.

부처와 돌 아닌 도리

지금 말씀하신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때문에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질문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됐어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주 고통을 받습니다.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용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공심으로 사는데, 조그만 거 하나 한 데 떨어질 게 없고 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공체와 공용입니다. 내가 움직여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움직여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은 어찌 응접할 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공심, 공생으로서 해드리면 그때는 그냥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과 같이 말입니다.

모두 공용을 한다면 전부 걸림이 없이 공용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죠? 그래서 공용한다 그러면 잘못하는 게 없어요. 서로 하고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공

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살림을 해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다.

이렇게 수차 말을 해도라도 남들이 안 가서 그러니 참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탄복을 한 이유를 저도 요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살아도 힘이 없이 하는 겁니다.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아시려면, 누구를 봤는데 금방 떼돌을 또 보죠, 봤는데 또 떼 돌 사람을 봐야죠. 다른 일할 걸 봐요. 이렇게 보니까 본 사이가 없다. 본 사이가 없이 봤다 이런 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24시간 동안에 몇가지를 했는지 모르죠. 몇가지가 거처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이가 없이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이가 없이 봤다 이 소리를 진짜로 이해를 하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공평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달렸으니깐 벌써 공심으로 관하면은 조상들도 다 거기에 이끌려서 그냥 공심이 돼버려요. 같이 공심으로 말입니다. 공심이라고 해서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 봤다 들었다 봤다 들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난 것도 없고 들인 것도 없다. 한 게 없이 한 거니까, 이해가 안가시죠? 여러분이 24시간 어떤 걸 했든지 어떤 걸 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만난 사이도 없고 한 사이도 없고 본 사이도 없이 보고 만났고 했구나. 그러니 빈손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오는 거로구나. 빈손 빈발이 바로 그런데서 오는 거로구나. 그런 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혹성에서 문제만 생겨도 그거는 사람이 가서 접근을 할 수 없는 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힘이 없이 하는 사람

들이니깐 대충대충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다 하면 답답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내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답답하면 나도 말을 해주다가 '참, 나무때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대중 웃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당시만 좋았지 그 뒤에 가면 걸려서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떠한 방침으로라도 알게 해야만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았을 자리도 버리고 잘 자리도 버리고 있을 자리도 버리고 돌아다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은 두렵고 무섭고도 없이, 옛날에는 도깨비불도 나오고 뿔 산중에서 발일이 다 많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은 쫓기기도 하고 쫓기도 했는데 나중에 죽고 사는 걸 다 버리니까 그때서야 아무 기탄이 없어요. 내일 죽어도 그만 이따 죽어도 그만, 그렇게 하나만 오히려 나무 한 가장구라도 다 주장오. 통성이 되잖아요.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 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가니까 나무 한그루, 한 가장구도 꼭꼭 찢어서도 알려줘요. 이리로 가면 길이 아니라, 이리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다, 밤중이니까.

이런 원인이, 그렇게 내가 거기를 함이 없이 가 봤으니깐 그런 말도 상대에서 나오는 거죠. 재미 새끼 하나도 생명있는 거는 다 소중하다. 소중한데 지구에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죽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죽을 시기가 되면 저절로

자연사가 되는데 우리가 마음먹고 저거 죽어야겠다 그러고 죽이면 더불어 같이 사는 공식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분명하게 뭐하러면요 하다 못해 재미 새끼 하나도 그렇고 하다 못해 개구리도 그렇고 잠마가 오면 개구리 알들을 모두 치켜다가 위에다 갖다 놓느라고 큰 개구리들이 야단들이예요. 그거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견져다가 올라다 놓는데 올라다 놔주죠. 그런데 꼭 대가가 와요. 대가 없는 건 없더라구요. 사람을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 해결을 할려고 그러고 나쁘게 해서 뺏어 먹으려고 이런다면은 꼭 내가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깐 영토당도 없게 그러니깐 나도 보존해야 하고 당신도 보존해야지 어느 거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도리를 잘 알면 조상들 때문에 걱정없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게 참 겁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재를 받드르르하게 해가지고 무슨 발자국이 생기는가 보느라고 해놓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선하게 산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자에 살 때는 어떡하고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다 나오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그만 거 하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사시는데 돈이든 제일로 치는 분들이 많죠. 돈이면 제일로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을 조상이 있는데 죽을 조상을 살리렵니까, 그냥 빨리 가시게 합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가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고 나이를 덜 먹은 분들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도 못쓰고 만약에 연세는 많으신데 고생을 하고 계시게 놔두면 그것도 불효죠. 또 나이 적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게 하면 또 그건 부모로서 안됐죠. 그러니깐 양면을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생을 안하고 속을 안 썩이고 답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해 나가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생명있는 건 다 소중

우리가 만일 절에 다닌다고 하지만 기복으로만 무엇을 바라고 다닌다면 항상 기복을 떠나지 못하죠. 그건 죽어도 떠나지 못하죠. 얻어먹고 살게 마련이니까 거기 생활을 면치 못하죠. 박복하고요. 그러나 사람으로의 삶도 생김생김도 차원도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박복하죠. 생각 하나에 그렇게 모두 해결이 나서 세세생생을 잘 살 수 있는데도, 식구들도 잘 살릴 수 있건만 그렇게 한탄 말입니다.

침착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져 눈물이 나더라도 우시더라도 자기의 주장자를 붙들고 우세요. 그러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업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 너무나 많아서 박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지나가다가도 불성한 짐승을 보면 건져 주시게 되고 나무 한그루도 건져주시게 되고 또 진화가 돼서,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착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질문3: 저는 딸을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한마음선원을 알게 된 건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언니가 파라파이에 있는데요. 한마음요전을 한국에 보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동시에 제가 한마

20면으로 계속

가짜로 언뒀을 뵈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IN 288쪽 값 6,000원 어서이루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파(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